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주)GMF 명예회장 김수경

2월 프로그램

창립 30주년 특집  
인간개발연구원 30년 小史  
창립 30주년 축하메시지

화제의 강연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조순

커버스토리 속명여대 총장 이경숙  
속명여대의 전성시대를 이룬  
섬기는 리더

나의 경영이야기  
(주)부천 사장 이시원

지자체특강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송대성

회원&연구원소식

세상을 보는 눈 (주)교통환경연구원 원장 신부용

리더십 이야기 / 발행인편지 / 이시형 칼럼

표지인물 이경숙 속명여대 총장 /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2005 February

# 2

등록 제48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5년 2월 1일 발행인 : 정민기 안전개발연구원(KHI) 주소 : 138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di.or.kr 디자인 : 디자인포드 www.cofi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6323



## 땅과 거름

김수경 (주)GMF 명예회장

### 웰빙

-빙(Well-being)이니 에코리빙(Ecological-living)이니 하면서 세상이 요란하다. 말은 참 좋은데 이 땅이 정말 행복하게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필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 땅은 있으나 거름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분변(糞便)을 3년 동안 먹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산다.”고 옛날 어른들은 말한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만드는 조건을 갖추어 놓고 시작을 했다. 외양간에 소, 돼지우리에 돼지, 닭장에 닭을 키워 그들에게서 나오는 배설물에 볏짚이나 풀들을 이용해 거름 만들기를 해놓고, 사람의 분변 또한 대소변을 분리하여 대변에는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를 섞어 발효시키고 소변은 소변대로 오줌장군에 따로 받아 충분히 삭힌 다음 밭에 거름으로 뿌림으로써 가축과 사람의 분변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퇴비를, 객토로 토양을 개량하고, 석회석 가루를 뿌려 땅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놓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농촌에는 땅은 있는데 거름은 없다. 땅은 거름이라는 밥을 먹고, 먹은 밥은 땅의 소산으로 되돌려 지상의 생명체들과 먹이사슬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생명현상의 진리이다.

지금 농촌에는 외양간과 돼지우리, 닭장이 없다. 볏짚과 풀 그리고 쇠죽을 먹고 자라던 소들, 쌀뜨물과 쌀겨에다 잔반들을 먹고 자라던 돼지들, 난알과 벌레와 모래를 파먹고 자라던 닭들은 간 곳이 없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과 오줌장군이 없어진 자리에 수세식 화장실을 통해 정화조에 담겨진 분변들은 청소차에 실려 종말처리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원천인 땅들은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가? 굶주리고 햇빛은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을 먹고살면서 웰-빙과 에코리빙이 가능할까? 화학비료가 있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생산해 내는 유기질 비료나 지렁이 분변 같은 좋은 거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유기질 비료 가격이 Kg당 100원 정도 가고, 한 평에 20Kg 정도 뿌려야 효과를 볼 수 있

으니 평당 2000원씩 들여서 땅을 먹여 살리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화학비료라는 것은 전체 땅을 먹여 살리는 먹이가 아니라 약국의 영양제와 같다. 세끼 밥을 제대로 먹으면서 보조수단으로 먹는 것이 영양제이지 주식은 아니니까 화학비료로 땅을 살리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인 것이다. 영양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영양이 고갈되어 종래에는 굶어죽게 되듯 땅도 종래에는 소출을 내지 못하고 황폐화되고 만다.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촌이 개량되고 초가지붕이 없어져 편리해지고, 화학비료의 양산과 사료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사료로 거대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먹거리의 양이 풍부해지고, 가공기술이 발달되어 입에 맞는 맛 좋은 음식물이 풍성하니까, 우선 생각에는 등 따듯하고 배부르니까, 헬스기구나 좀 갖추어놓고 공기정화기나 하나 설치해 놓고 살면 웰빙 아니냐고 자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래 위에도 궁궐을 지을 수 없듯 땅과 거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그것은 공염불이고 메아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우에는 풀어서 새로 끼우지 않으면 안 된다. WTO, FTA 협정 시대에 좁은 국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금부터라도 자연이 지니고 있는 생리, 즉 땅은 우리가 주는 만큼 되돌려 주고 우리가 받은 만큼은 최소한 땅에다 환원시켜야한다는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人間**



김수경 (주)GMF 명예회장

고려대 농학과 졸업 /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 CBS 건강컨설턴트 / 약사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대한 당뇨협회 감사 / (주)GMF 회장 / 연변 과학기술대 후원이사,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부회장 겸 교육원장 / 인제대 임상병리학과 외래교수



# 2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 회에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디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특별세미나〉

## 한·중·일 경제인들은 아시아시대를 어떻게 열어가 것인가

1388회 2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오다케 요시키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 창업자·최고고문

아시아는 21세기를 맞아 세계경제사에서 압축성장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한국과 일본,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의 성장이 예견되는 중국 등 동북 3국을 축으로 지구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한·중·일 3국은 불행한 과거에 매달리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21세기를 아시아시대로 만든다는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시점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경제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치·사회·문화교류에 파급되는 효과 또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3국 경제인들의 협력으로 아시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일본의 경제인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최초의 '암보험'으로 시작한 '아메리칸 패밀리생명보험(AFLAC)'을 일본 최대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시킨 오다케 요시키(大竹 美壽) 창업자·최고고문이 바로 그다. 행정규제와 기득권이 거세던 보험업계에서 AFLAC을 급성장시킨 신화를 일구어낸 그는 기업인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아시아적 패러다임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3국 경제인들이 긴밀히 연대하여 인재육성, 기술교류, 벤처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오다케 고문은 아시아시대 도래를 위한 학생, 경영자 등의 인재육성, 벤처기업가 육성, 재계단체 활동 등 본업 이외에도 일본 재계를 이끄는 입장에서 왕성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0년 美 〈Business Week〉가 선정한 '아시아의 스타 50인'에 선정되기도 한 오다케 요시키 AFLAC 창업자·최고고문을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별 초청하여 한·중·일 경제인들의 협력으로 만들어갈 아시아시대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日 히로시마 농업단기대(현 히로시마현립대) 졸업(1959)
- AFLAC 설립 부사장 취임(1974)
- AFLAC 일본 대표자 사장, 회장(1986-01)
- (재)임연구회 평의원(1995-03)
- 국제기업경영자협회(IMA) 이사(1995-현)

- 경제동우회 간사, 아스펜연구소 감사, (사)New Business협의회 부회장(1998-현)
  - 학교법인 명치학원 이사(1999-현)
  - AFLAC 회장(2001-03)
  -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이사(2002-04)
  - (재)국제과학진흥재단 회장(2002-현)
  - AFLAC 창업자·최고고문(2003-현)
- 〈상훈〉 藍綬褒章(란주호우소) 수상  
〈저서〉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일본, 주머니 속의 인간학, 리더 개조론 외

## 총체적 위기극복의 국가경영과 리더십

1389회 2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前 국무총리

21세기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진국 진입이다. 우리는 광복 후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은 우리 역사의 새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노사간, 이념간의 갈등은 상호간의 불신을 재생산하고 국가에너지를 급격히 소진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정치권의 행보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며, 중국의 급부상에 쫓기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한국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부진으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가계부채증가, 수출부진 등으로 전환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는 우리의 국가신인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작은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관용과 통합의 상생정신을 표방하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경영의 총체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의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은 이제라도 사회전반의 갈등과 반목을 상생과 협력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총장과 제29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2003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재직중인 이수성 전 총리를 초빙하여 '한국'이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리더십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법학과 졸업(1961)
- 서울대 법학 석·박사(1964-76)
- 서울대 법과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1972-95)
- 서울대 학생처장(1980)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1985-89)
- 서울대 법과대 학장(1988-90)

- 제20대 서울대 총장(1995)
  - 제29대 국무총리(1995-97)
  - 신한국당 상임고문(199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1998-00)
  - 민주국민당 상임고문(2000-03)
  - 제16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2003-현)
  - 서울대 명예교수(2004-현)
- 〈상훈〉 청초근정훈장  
〈저서〉 형법총론, 형사정책, 신뢰와 희망, 정치는 사랑이다 외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접목으로 보여준 경영혁신과 인재경영

1390회 2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허태학 삼성석유화학(주) 사장

우리의 경제환경은 올 한해도 환율불안, 고유가, 원자재난 등의 악재에 둘러 싸여있어 주요 기업들의 경영 화두는 단연 혁신으로 모아지고 있다. 예전에도 기업들은 경영혁신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인재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이 선결되어야만 세계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인지도 아래 더욱 체계화하고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영혁신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6년간 다양한 장르의 서비스업에서 관리자이자 경영자로 일해온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은 '혁신 전도사', '서비스 전도사'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허 사장은 'CEO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다를 것이 없으며 제조업계에 서비스패러다임을 뿌리내려 고객감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내부의 직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지고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돼 다시 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며 내부고객 만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IT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해 디지털 지식경영을 가속화하는 등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6시그마를 도입해 직원들의 의식개혁에 나서 직원들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화하게 만들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전문능력, 높은 수준의 리더십, 인간관계 스킬, 투철한 조직관 등의 덕목을 갖춘 소수의 핵심인재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인재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최고의 테마파크와 호텔 CEO를 역임하며 국내 서비스문화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를 제조업에 접목시켜 경영혁신을 이루어낸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초빙하여 인재경영과 함께 경영혁신의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경상대 농학과 졸업(ROTC 5기)(1967)
- 美 코넬대 호텔경영과정 수료 (1982)
- 경상대 명예 경영학 박사 (2001)
- 삼성그룹 중앙개발(주) 입사 (1969)
- 호텔신라 부총지배인(1981-84)

- 호텔신라 영업담당 이사(1984-89)
- 제주신라 총지배인(상무이사)(1989-92)
- 중앙개발(주) 대표이사 사장(삼성에버랜드로 사명변경) (1997-02)
- 삼성에버랜드(주) 사장 겸 (주)호텔신라 사장(2002)
- 삼성석유화학(주) 사장(2003-현)
-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이사(현) (상훈) 동탑·금탑산업훈장,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상, 한국경영혁신대상, 한국리더십대상 차

## 창립 30주년 기념 포럼

#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

2005年 2월 23일(수) 오후 4:00~9:00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인간개발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을 비롯한 연구원의 모든 활동들을 지켜보시고 도움주신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정책포럼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력 회복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각각의 대안과 발전방안을 산자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책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얘기해보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원동력과 활로를 모색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리더십포럼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디지털 대학, 지식경영대학, 문화선도대학을 추구하는 숙명여대와 함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2월 22일 완공되는 100주년 기념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경제정책포럼 (16:00~18:30)

#### 1. 주제발표

- 주 제 : 한국경제의 성장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성화의 길
- 발표자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2. 분야별 발표

순번	주제	
1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중 경제활성화 정책의 내용과 실행방향
2	대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
3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지원정책 과제
4	금융지원의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중소기업 육성 경영전략
5	R&D 지원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R&D 국가경쟁력과 지원정책
6	사회 및 인간의 차원에서	노사관계 개선과 인력양성 정책 활성화
7	벤처기업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역할과 활성화의 길, 그리고 정부의 육성정책

### • 창립 기념식 & 만찬 (18:30~19:20)

### • 리더십포럼 (19:20~21:00)

\* 공동주최 : 숙명여자대학교 / 인간개발연구원

#### 1. 주제 발표

- 주 제 : "한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십"
- 발표자 : 김수환 추기경 (섭외중)

#### 2. 분야별 발표

- 주 제 :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의 비전

※ 위 프로그램은 섭외중이므로 추후 다시 공지 드립니다.

# 인간개발연구원 30년 小史



- 1975 제1회 월례 인간개발경영자초찬회 개최(2월 5일 창립, 2005. 1.27 현재 1387회) / 박동묘 前 농림수산부장관 초대회장 취임 (1)
- 1976 과학기술처(인력개발관실, 당시 최형섭 장관) 사단법인 인가  
人間資産開發 紙上캠페인 실시 (연간 전면 47회 게재, 현대경제  
일보 공동)
- 1978 최고 경영자를 위한 「노사협조세미나」개최 / (보사부 노동부 경  
제4단체 후원, 전국6대도시 26회, 3029명 수료) / (故)주 원 前  
건교부장관 제2대 회장 취임(제2대~제4대)(2)(3)
- 1979 목요 인간개발연구회 개설, 하계 인간개발경영자세미나 개설  
(총 24회 개최, 이후 밀레니엄제주섬머포럼으로 발전)
- 1980 주무관청이 과학기술처에서 문교부로 이관
- 1981 「인간개발 토요시민강좌」개최 (총 24회 실시. 문교부, 한국교육  
개발원 후원) / 월례 인간개발경영자초찬회(77회)와 목요 인간  
개발연구회(86회)를 주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로 통합함(4)
- 1982 문교부 정기간행물 등록 라-2710호 월간 「인간개발」창간 (총  
74호 발간)(5)
- 1984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으로 개칭 (6)
- 1985 (故)최형섭 前 과기처 장관 제5대 회장 취임 (7)
- 1987 월간「정신세계 다이제스트」창간 (총 12호 발간) (8)  
(춘·추)전국경영자세미나 개설 (통산 20회 개최)(9)
- 1988 월간「경영실천강좌 세미나」개설 (총 95회 개최)(10)(11)  
(故)이한빈 前 부총리 겸 경기원장관 제6대 회장 취임
- 1990 한국LMI를 자매기관으로 설립, 인재개발연수프로그램 실시
- 1992 이규호 前 통일원· 문교부장관 제7대 회장 취임 (12)
- 1994 최창락 前 동자부장관· 산은· 한은 총재 제8대 회장 취임  
(제8대~10대 회장 역임)
- 1995 장성군청 「장성아카데미」시작으로「인간개발 지방자치아카데미」  
사업 실시(13)
- 1997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매경이노베이션」개설 (총 14회 개최)  
대통령표창 (산업교육훈련 분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000회 기념 심포지엄」개설(14)
- 1998 경기도청「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개설 외 / (강진군청, 거창군  
청, 아산시청, 칠곡군청과 지자체아카데미 신규개설)



- 1999 미국 GE의 CLO(Chief Learning Officer) Steven Kerr 박사 초청 특별세미나(15)  
거제시청『거제시민대학』 개설 외 (강릉시, 나주시, 정읍시, 충청북도와 지자체아카데미 신규 개설)
- 2000 창립25주년기념 日本“경제전략회의의 히구치 히로타로 의장 (아사히맥주 회장) 초청세미나 (16)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인증제(IIP, 연구책임자 정진호 박사) 개발 연구용역  
부천시청『복사골 아카데미』 개설 외 (강북구, 광주광산구, 김포시, 무안군, 부안군, 영양군, 완도군, 이천시와 지자체아카데미 신규 개설)
- 2001 월보 『Better People Better World』창간 (17)  
무역대리점협회 후원으로 AFTAK FORUM 21 개최  
일본경제신문 국제교류회의『아세아의 미래』참가단 파견  
인간개발연구원 조직 및 임원을 회원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인간개발 상시 혁신체제 구축  
정진호 제2대 원장 취임  
장만기 제11대 회장 취임  
조 순 명예회장 추대  
곡성군청 『심청골 아카데미』 개설 외 (강화군청, 광주교육청, 광주동구청, 괴산군청, 논산시청, 달성군청, 봉화군청, 부여군청, 상주시청, 서산시청, 서산부춘동, 영덕군청, 영암군청, 영천시청, 예산군청, 울산동구청, 전남농정, 전남도청, 진주시청, 화순군청, 황성군청과 아카데미 신규개설)  
도서출판 한길사와 함께 지식담론클럽 『지중해클럽』 창립)
- 2002 주무관청이 교육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윤병철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 조직위원장 추대 (18)  
양병무 제3대 원장 취임  
창립 27주년 기념 : 21세기 인류사회와 생명윤리 주제로 뉴밀레니엄 인간개발포럼 개최  
보성군 『보성 자치포럼』 개설 외 (경산시, 고령군, 당진군, 순천시와 아카데미 신규 개설)  
일본 지바현 상공회의소 한국방문 교류
- 200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해외친목회와 자매결연 (19)  
창립 28주년 기념 : 무라카미 카즈오 일본 츠크바대학교 교수 초청 세미나 (20)  
제주도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제23회 밀레니엄경영자섬머포럼 개최  
『차이니클럽』 창립(회장 홍순영 前의교통상부 장관)  
『경북아카데미』 개설(경북도청 외 고창군, 대전서구, 밀양시, 상주시, 제천시와 아카데미 신규개설)
- 2004 Young CEO Forum 창립(회장 : 성도GL 김상래 사장)  
창립 29주년 기념 : 황장엽 前 조선노동당 비서 초청세미나 (21)  
남해군청 『남해 보물섬 아카데미』 개설 외 (강원개발공사, 남해군청, 여주시청, 여주대학, 울산북구청, 인천시청, 현대오일뱅크와 아카데미 신규개설)  
제1회 한일국제노동포럼 개최 (22)  
제1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국길림성 국유기업 CEO 한국방문 연수단 교육

#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 축하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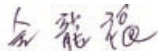
한 세대를 풍미하는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꿈을 가진 자에 의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미래의 꿈을 개척하는 자들에 의해 한국은 새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개발연구원이 자리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장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고 탁월한 발전만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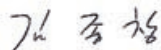
30년간 쉽 없이 이어온 인간개발연구원의 끈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찬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그야말로 민족의 스승이요, 애국자의 상징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에 딱 들어맞는 이 시대의 특급 애국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줄로 압니다. 이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중 한 구절을 대신하여 축하와 찬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김용복 (서울)영동농장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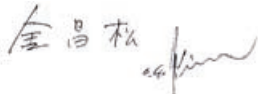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라 했고 지식은 사람이 기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30년 전에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에게 일찍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선각자는 바로 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 장년을 지나 성숙기로 넘어가는 인간개발연구원의 3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더 좋은 인재를 계속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Good to Great!

김중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새 꽃대를 향해 세계로 - 먼저 지난 30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야말로 지난 25년간 나에게 깊은 사유와 넓은 안목을 가이드해 주신 외판섭의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새벽잠을 설치며, 때로는 아픔과 고뇌를 홀로 씹으며 ‘경영자는 고독하다’를 몇 번이고 되씹었습니다. 苦盡甘來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서에서는 ‘다만 너희는 이 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이사야 43장 18절)’ 라고 했습니다. 오직 새로운 각오로 새 도약을 위해 세계의 길목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창립이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목요 조찬 경영자연우회’를 개최, 공부하는 경영문화의 전통을 세운 인간개발연구원의 30주년은 지식산업시대 길목에 있는 이 땅에 더없이 소중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시대적인 사명이자 남녀평등사회로 가는 지표라고 합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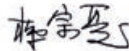
사회를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회원여러분들의 희망을 담아내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성장한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인간개발연구원이 세계화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속희 우먼타임스(주) 대표이사



30년의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끊임없이 불타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하는 Success Story입니다. 성덕한 지혜와 뻗어가는 성장동력이 우리신화의 큰 역사를 쓰는 데 계속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종하 CyberMBA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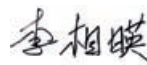
30년 전에도 386세대는 있었다. 30년대에 태어났으니 6.25전쟁을 겪었고, 60년대에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외치면서 닭우는 새벽에 서울 한 복판 호텔로 엉뚱하게도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망의 80년대에 단순한 인력동원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개발하자는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張萬基’의 386성공론이다. 아무도 동원된 자는 없었다. 모두들 스스로 모인 것이 이미 30년, 1387번째이다. 한번도 쉽 없이, 한눈 판 적도 없이, 오직 제 힘으로만 걸어왔다. 어떤 때는 “빛을 주소서! 하늘이여! 황소처럼 터지는 울음을 주소서...” 하면서 제 갈 길만을 뚝뚝뚝 찾아가다. 사실 그의 시야는 벌써 세계적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Paul J Meyer의 세계적인 비전과 용기를 이 땅에 심었다. 그것이 한국인의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인경회’ 모임은 우리 각자의 ‘내면적 자신’을 깨우쳐 주었다. 자기 확신의 능력과 전력투구하자는 오기까지 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바라는 바로 그 본질이 나오 되고자 하는 바라 그 결단과 그 능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21세기의 인간개발을 위하여...

이동희 오성연구소 이사장



새벽을 여는 목요 조찬 경영자연우회로 대표되는 인간개발연구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주옥같은 강연을 통해 작고 강한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본 연구회의 기여는 실로 지대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선 이러한 조찬 모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원이 없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로선 이러한 조찬 강연이 민족의 번영발전과 더불어 영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영 (주)농협유통 대표이사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5년 창립 이후 1387회에 이르기까지 목요일 조찬 연구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며 공부하는 경영문화의 전통을 세운 것이 바로 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 특히 공직자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풀뿌리 민주

주의의 초석을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미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차별화 된 전략과 그에 맞는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해 지식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모토처럼 제도적인 교육 체계 수립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리더들을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빠르게 통합되고 있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난 30년간의 희망과 열정을 담아 앞으로의 30년을 채워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심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심**

1990년부터 15년간 지적 호기심충족을 통한 본인의 갈망에 대하여 인간개발 연구원이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원기 원풍물산 대표이사 **李元祈**

“한국에 인간개발연구원이 있었기에 한국경제가 그토록 빨리 발전한 것 같다.” 어느 외교관의 평이다. ‘장만기 회장은 한국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별명을 주고 싶다. 엄경에 여사는 접수를 보고 장만기 회장은 손님을 맞이하던 조선호텔의 초창기 시절이 벌써 30년! ‘조찬회의 나라, KOREA’를 만든 업적! 대단한 애국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덕규 월간 Diplomacy 회장 **林德圭**

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의 길잡이로서 크게 공헌한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 역사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 **전승표**

우리나라는 인적지원이 유일한 자산인 국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걸음이 인간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인간개발연구원의 크신 성과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인간개발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鄭暢泳**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우수한 인적자본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IMF위기 이후에야 비로소 주목받게 된 이 진리를 인간개발연구원은 이미 30년 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장만기 회장, 양병무 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지금의 인간개발연구원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이 처음 출범할 때 가졌던 큰 뜻을 변함없이 지키면서 ‘better people better world’ 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인간개발연구원을 이끌어 오시느라 애쓰신 장만기 회장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인간개발연구원이 꾸준히 노력하여 국가, 기업, 사회 등 각 분야에 기여한 다양한 업적과 공과에 대하여 깊이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절실했고 ‘better people better world’ 라는 인간개발연구원의 신념이 30년 후 지금의 한국사회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이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을 발전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영광의 또 다른 앞날을 기원합니다.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황석희**

※ 게재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입니다.





#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방향

조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음

해는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불황은 아니지만 슬로다운이 예상된다. 유럽은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작년에 2% 정도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금년에는 이 정도도 어려워 1%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도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조금 좋고, 거기에 비해서 독일, 이태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일본은 작년에 4%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했으나 작년 말 하향조정을 했다. 금년에는 일본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38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겸 신년하례회

## 최대의 이슈는 지속되는 달러화의 하락

금년 최대 이슈는 달러화이다. 지금 자꾸 달러화가 떨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무역을 가산해서 달러화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추산해 보면 약 17~18% 정도 떨어졌다.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의 나라들이 대미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화를 계속 쌓아 놓은 것이 원인이라고 세계는 보고 있다.

2004년 12월에는 1조 3,960억불이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갔으며 그 중에서 1조 680억불이 동양권 나라들에 유입되었다. 이렇게 동양권 나라들은 대미 흑자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일본, 중국, 한국은 달러 보유고가 높다.

달러화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세계경제가 지탱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 일본도 계속해서 인민폐에 대한 절상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중국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었다.

‘향후 중국정부는 원화를 절상할 것인가’, ‘또한 이렇게 되면서 세계 통화국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이것이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올해 가장 큰 핫이슈 중에 하나이다. 금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경제는 많은 혼란과 논의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 중국정부는 원화를 절상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대략 2005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 이 경우 3% 정도의 소폭 절상이 이뤄지거나, 달러화, 유로화, 엔화와 연동해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큰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국제수지는 적자이다. 달러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세계 각국의 1차 상품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절상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대폭적이진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절상을 한다고 해도 중국에게는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과열경기가 연착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선불리 위안화를 절상했다간 중국경제에 있어서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린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달러화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이 너무 많이 쓴 결과 저축률이 0.2% 정도로 낮기 때문이지 중국이 달러화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중국인들은 말한다. 얼마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미국은 왜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



를 조성해 놓고 남에게 자꾸 해결하라고 하는가.”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의 달러화가 약화되는 것은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인데 왜 절상압력을 넣어 중국 경제를 흔들리게 하느냐는 것이다.

넷째, 미국 내에서도 위안화의 절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목소리가 꽤 있다. 바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다섯째, 20년 전인 1985년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대폭 절상했다. 결국 이것이 1990년대 침체의 큰 원인이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이지만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보자. 지난 160년의 아시아 역사를 더듬어 보면 40년만에 한 번씩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의 고종황제가 임금이 된 것은 1864년 갑자년이었다. 일본의 명치 천황이 천황에 오른 것이 1868년 무진년이었다. 이로부터 40년 후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 한국을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1904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후 40년이 지난 1945년에 한국은 해방이 되었고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다.

또 40년 후인 1985년에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 있는 민주주의를 아직도 잘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초반에 시작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미국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 낸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가장 득을 본 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과 같이 중국을 부상시켜준 것은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과거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라서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과거 일본과 한국은 가급적이면 문을 닫고 국내에서 하나의 수출 파워하우스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의 정책이었고 일본을 모방한 한국의 정책이었다. 반면에 중국은 문을 가급적 활짝, 많이 열어 놓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소매업 부분을 활짝 열었다. 월마트가 약 1,000개의 지점을 중국에 진출시킨다는 기사를 들었다. 큰 할인점이 들어오면 재래업종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중국이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들어와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이 난 후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월마트의 개방결과는 결국 중국경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은 중국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글



로블라이제이션의 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앞으로 중국 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도 득을 볼 것이다.

한국은 내적으로 1985년 이후 민주화에 문제가 있다. 민주화는 선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따른 어떠한 질서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떤 질서와 규범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선거만 하면 민주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화를 함으로써 여러 상반되는 이해가 조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을 얻는 하나의 질서가 민주화이다.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딱 막아놓고 하려다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IMF를 맞아서 타율적으로 많은 개방을 하게 되었으며, 지나친 개방을 함으로써 결국 아직까지 성장 잠재력을 별로 배양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민주화는 경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부가 달라져야 한다. 1980년대 이후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제인데 우리는 달라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있다. IMF를 맞고 나서 지금까지 회복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이노베이션을 못하는 것이 문제**

우리 장래를 내다보면, 첫째 작년 우리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수출은 계속해서 상당기간 동안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작년에 수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했고 수입은 25%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

는 작년에 297억 달러였다. 올해는 적어도 약 10~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수출은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본, 한국,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동남아를 포함해서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수출품의 약 60% 정도는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 소재 등 중간 생산물이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발전을 지탱하는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은 오랜 기간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 소재를 얼마든지 사들일 능력이 있다. 중국의 중부지방은 이제 막 경제발전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쪽으로 많은 수출의 증가가 이뤄질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 FTA가 체결된다면 계속해서 한국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은 잘되는 반면 내수산업에 문제가 있다. 최근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말을 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중소기업이 이노베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에 모든 수출이 국한되어 있고 이노베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잘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별로 없다. 지난 30년을 봤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접선이 없어지는 정도로 이노베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과거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없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과거 중소기업의 육성은 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와 기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실질적인 자원이 중소기업으로 투입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도 이노베이션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에는 호텔, 도매업, 소매업, 금융 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런데 거의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청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 음식점을 창업했다가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에도 전문화, 대형화가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이다. 싫든 좋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전문화·대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적·물적인 인프라가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빈약하다. 구호로만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안되며 인적·물적인 인프라, 즉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의 몫이다.

지금 금융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 외국 금융이 들어와서 우리는 외국의 금융기법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기법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금융이 아니다.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고 개인에 대한 대출에만 주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호텔, 식당 등도 서비스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다 좋은 호텔과 클럽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와서 편안히 상담도 한다. 한국은 이런 점이 아주 부족하며 이것을 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제조업, 서비스산업 모두 이노베이션이 적은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이다.

### 개혁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정상화하는 것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것은 개인부분만이 아니다. 정부부문, 공공부문, 기업에도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정책에 있어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화에 적응해야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민주화 이후의 경제정책 기본 사고방식과 군부독재시대의 사고방식이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서는 위치가 달랐을 뿐이지 사고방식은 다 똑같았다. 이노베이션은 없었고 단지 보는 앵글만 달랐을 뿐이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한국에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 실체는 별로 없다. 외국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자유화는 과거 동유럽의 공산국가만도 못하다'는 기사를 봤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경제를 보는 기본시각은 3~4공 때의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3~4공 때의 이러한 시각은 과거 1940년대 일본의 국가사회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시장경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나는 개혁이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정상화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만 지식산업을 우리가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대를 알고 대체를 아는 것, 둘째 시대와 더불어 같이 가는 것, 셋째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사구시를 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 없는 정치, 질서 없는 사회, 이노베이션 없는 경제를 불식하고 앞으로 새로운 몇 해 동안에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내려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人間**

# 숙명여대의 전성시대를 이룬 섬기는 리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21세기형 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격적 리더십입니다. 남을 먼저 섬기고 희생과 헌신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 오는 권위에서 21세기 리더십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섬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1994년 교수 직선제로 총장에 취임한 후 11년째 숙명여대를 이끌고 있는 이경숙 총장은 2006년 창학 100주년을 맞아 숙명여대를 여성리더십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리더십센터를 숙명리더십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등 리더십교육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학교부지 확장과 발전기금 모금 운동 등의 외형적 발전 외에도 디지털대학, 지식 경영대학, 문화선도대학이라는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총장은 축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 모듈 앞에서 댄스공연을 펼치는 등 춤추는 ‘총장 언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의 10%를 숙대에서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경숙 총장을 만나 지난 11년 동안 변화된 숙대의 모습과 향후 민족여성사학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1943년 생 / '65~67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 '75 美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 박사 / '76~81 숙명여대 정외과 부교수 / '81~85 제11대 국회의원 / '85~89 숙명여대 정법대학 학장 / '90~94 숙명여대 기획처 처장 / '93~97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북한연구회 회장 / '94~현 숙명여대 13~15대 총장 / '98~현 제2간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유네스코 석좌교수 외



▶ 2월말 완공되는 100주년 기념관

Q : 2006년이면 숙명여대가 창학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사학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학교소개, 자랑 좀 해주죠.

A : 숙명여대는 1906년 고종황실에서 우리나라 힘으로 만든 여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설립한 민족여성사학입니다. 당시는 시기적으로 암울했던 때였기에 여성도 구국하는 일꾼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숙명학원의 창학 이념입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숙대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념을 이어 현재는 여성 리더를 키우는 쪽으로 특성화를 하고 있으며, 창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여성리더십의 산실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으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을 갖추는 여성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이 숙대의 비전입니다.

Q : 총장님께서 지난 94년 교수 직선으로 제13대 총장에 취임하신 후 '3선 연임'에 이르고 계신데요.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장수비결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94년 3월 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허황된 비전을 내세운 것이 사실인데도 구성원들이 저의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온 것이 생각할수록 고마움으로 남습니다. 저 또한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고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

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총장이라는 자리가 권위,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구성원 하나 하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저를 믿고 큰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Q : 총장에 취임하시고 95년 명문여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2창학을 선언하면서 1,000억원 모금운동을 시작한 일은 지금도 많은 관심을 모으는 사안입니다. 취임 11년을 맞는 지금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A :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제 책상 위에는 7억 8천만원짜리 세금고지서가 놓여있었습니다. 학교가 적자투성이였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냉소와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교직원 노조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불만에 가득찬 교수들 뿐이었습니다. 개교 100주년인 2006년에 맞춰 학교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로 1,000억원 모금운동을 펼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숙대가 모아본 모금이라고는 도서관 건립기금 2억원이 최고' 였다며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등이 진행되면서 11년이 지난 지금 학교 부지는 2배로 늘었고, 건물도 17개가 새로 생겼어요. 현재 순수 모금액만 78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주장한 것은 순수모금, 수익프로그램개발, 학교운영비 절감 등을 모두 얘기한 것이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벌써 1,000억원은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빚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죠. 무엇보다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가 활기 넘치고 뽕뽕 뭉쳐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98년 국내 대학 최초로 무선랜을 구축했고, 2002년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학사행정을 처리하는 모바일 캠퍼스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기존의 리더십센터가 숙명리더십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되면 숙대는 이제 리더십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공로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국가고객만족도 대학부문에서 99~01년까지 3년 연속 1위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수많은 '최초'와 '1위'를 기록하여 사립대학들 사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Q : 외형적 변화 못지 않게 숙명여대는 다양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창학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책적 변화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A :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지식과 조직의 정보능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숙대는 여기에 맞는 여성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나 기업과도 적극 협력해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창학 선언 이후 숙명발전엔 무형의 에너지원이었던 지식공유문화, 정보생활문화, 통일조성문화, 섬김문화운동은 이제 디지털대학, 지식경영대학, 문화선도대학이라는 3대 특성화 정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예로 세계최고의 요리학교인 프랑스 '코르동블루'와 손잡고 한국분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IT인력 취업기관인 자스넷(Jasnet)과 협조를 통해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매년 수십명을 일본 현지나 한국 내 일본회사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숙대의 취업률은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대학, 섬김의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 화합하는 대학,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명문여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편 97년부터 전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모든 문서를 사무과정혁신(BPR)에 맞춰 새로 정리하는 등 행정개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Q :** 취임 11년 동안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때나 보람있었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A :**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래도 학교부지 문제였습니다. 고종황실에서 세운 숙대는 조선왕조가 망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에 있는 학교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학교 땅도 국·시유지로 편입돼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7개 기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재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취임 후 토지소유권 정리와 공원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밤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읽고 공무원과 시의원, 구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98년에 학교부지와 관련된 모든 등기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가장 기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Q :**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A :** 최근 수험생의 감소로 인해 대학간의 신입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온다'는 말처럼 대학들은 앞으로 고교 졸업생들보다 일반인들을 교육수요자로 생각해야 돼요. 대학은 사회 흐름에 따라 사람, 문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고 평생교육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평준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고교평준화는 잘하는 학생들까지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제한시키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학생 각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여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해요. 사립학교법 개정도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전체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자율적인 학교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육의 발전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Q :** 총장님께서서는 대학축제 때 재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춤추는 '영원한 총장 언니'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A :** 캠퍼스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학교에 오면 공부하기 편안하고 좋다는 애정도 느끼게 해주고 면학분위기도 조성하는 한편 재미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매년 봄 '청파은혜제 및 성년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청파은혜제는 자녀들을 숙대에 보내주신 학부모들께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성년례는 이제 스무 살이 되는 학생들에게 성년의식제를 해주는 행사입니다. 민족사학으로써 학생들에게 전통의식도 가르쳐주고 학부모들과 함께 대접해줌으로써 성년의 성숙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행사에 춤과 같은 공연을 준비하게 된 것은 학교측에서 말로



▶ 숙대는 프랑스 '코르동블루'와 협력해 한국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만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학생들의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해 저를 비롯해 대학원장, 학장, 부속기관장 등 20여명이 한달 동안 연습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총장과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결국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조직에 창의력도 생기고 도전의식도 생겨나게 됩니다.

**Q :** 우리사회에 전문직 여성은 많아도 여성지도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대로서 여성지도자 양성에 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 지난 4·15 총선에서 여성의 비율이 5.9%에서 13%로 늘어났고, 사법고시에서는 여성 수석합격자가 나왔으며 교육,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도가 30%는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화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 '의사소통 능력개발센터'에서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토론, 발표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의사소통 기술은 필수적이죠. 지금 시행한지 4년째 접어드는데 다른 대학들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효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책임감을 불어넣는 교육과 함께 봉사활동도 강조해 학생의 10%가 각종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달 문을 여는 숙명리더십개발원은 그 동안 부분적으로 진행해오던 리더십교육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 등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재교육하거나 처음부터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리더십개발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00명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들어서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중심뿐만 아니라 아·태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의 10%를 숙대에서 배출할 것입니다.

Q :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십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준비중인데요. 총장님께서서는 우리사회에 어떤 방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21세기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느냐 여하에 따라 이 세기가 발전하고 편안해지느냐의 여부가 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형 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이 되어야 진정한 리더십의 발휘와 함께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이 강압적이고 힘에 의해 지배되는 수직적·권위주위적 리더십이었다면 21세기형 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격적 리더십입니다. 남을 먼저 섬기고 희생과 헌신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권위에서 21세기 리더십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섬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여성 리더십은 '여장부다워야 하고 남성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실천할 수 있어요. 속대의 모토처럼 '부드러운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에 목마른 디지털시대에 있어 여성의 감성과 섬세함, 포용력, 관계지향성은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여성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Q : 총장님께서서는 81년에 이미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생활 경험이 있으신데요. 오늘날 한국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정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민통합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갈등과 분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태도, 상생하는 태도를 우리 스스로가 교육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사회의식도 바꾸고 개개인의 생각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 인간개발연구원이 2월 5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그 동안 '인간개발'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왔고, 향후 30년을 위한 사업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간개발에 대한 총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 '인간개발'이라는 과제가 연구원 창립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는 선견지명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연구원이 사회와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인재의 중요성이 기업과 사회발전에 있어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한 명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리더십대학원대학교 설립과 같은 사업은 속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슷해요. 저희는 여성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여성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 여성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Q : 총장님께서서는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A : 지난 30년간 수많은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새벽을 열어오셨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리더십은 어느 곳에서도 중요하지만 3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장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올해가 을유년 닭의 해인데 새벽 장닭의 울음처럼 모든 사람의 의식을 깨워주는 역할을 30년 동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연구원 창립 30주년과 을유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룩해오신 기반 위에 연구원이 앞으로도 많은 발전 거듭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기술로 국제경쟁력 키우는 자수섬유 외길인생

이시원 (주)부천 사장

“Not the biggest, but the Best”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 사양기업은 있어도 사양산업은 없어

1970~80년대는 섬유산업이 한국산업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섬유가 사양산업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40~50년대 태동기와 70~80년대 성장기, 성수기를 거쳐 이제는 정착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산업계를 주도하며 수출의 중심에 있지도 못하고, 국내 매출이 급격히 줄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제품개발을 통한 내수문제 해결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소재로 생산품목을 전환시켜 고품질 소량제품으로의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양기업은 있어도 사양산업은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대구에서 태어난 필자는 영남대를 졸업한 67년 당시 섬유류 수출에 있어 국내 대표기업이었던 남선물산에 입사하면서 섬유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무실은 서울에, 공장은 대구에 있었던 관계로 서울에서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의 업무를 맡던 나는 평상시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대구 공장에서 생활하는 등 휴일도 잇은 채 일을 했다. 지금처럼 팩스나 전화가 자유롭지 못했기에 서울과 대구를 버스로 오가며 젊은 혈기에 섬유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봉장이라 생각하고 일했던 것이다.

### 이시원 (주)부천 사장

1945년 생 / '67 영남대 상학과 졸업 / '96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67~'73 남선물산(주) / '73~'75 대일섬유(주) 부사장 / '75~'82 부천섬유공업사 설립, 대표 / '82~현 (주)부천 사장 / 00~02 한성대 패션섬유예술학과 겸임·외래교수 / '02~'04 경편직물 수출협의회 회장 / '04~현 영남대 재경동창회 회장

## 섬유산업 선봉장을 꿈꾸며 창업한 부천

그렇게 해서 입사 7년 만인 29살에 부사장까지 승진한 나는 더 이상 회사에서 할 일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최고의 섬유기업을 내 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신념으로 75년 창업의 길에 뛰어들었다. 퇴직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2천만원의 돈으로 20평 남짓 되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3명과 함께 '부천섬유공업사'로 출발한 것이다.

여성의류에 주로 쓰였던 경편직물(Tricot)을 구입해 의류업체에 공급하는 일로 시작한 사업은 꾸준한 매출 신장으로 3년 후 대구에 공장을 세우고 독일제 중고 경편기계 6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망사류 여성속옷을 만들어 일본과 영국에서 전량 수입해 오던 제품을 대체하게 되었다. 직원들과 함께 휴일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일한 덕분이었다. 82년에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사에 자수를 넣은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80년대 들어 중동지역에서 대히트를 쳐 폭주하는 주문에 공장을 24시간 풀가동 해도 물량을 맞추지 못할 정도였다.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에는 신축성과 촉감이 뛰어난 '스판텍스폴지'를 개발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이렇게 꾸준히 사업이 성장 국면에 접어들던 93년에는 '스판텍스벨벳'의 개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수출국가가 서서히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을 짓고 스위스 사우라사에서 자수기계를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사우라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 회사 기계담당자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기계를 팔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먼 길을 달려온 상황이라 정말 난감하기도 했지만 4전 5기의 길을 걸어 결국 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기계담당자는 나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보이며 1년 동안 스위스 기술자들을 한국에 보내 기술이전을 해주고 돌아갔다. 지금도 매년 직원들을 스위스 아본시에 있는 자수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 때 일은 30년간 경영생활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고 있다.

##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아시아 정상권에 올라

현재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자수제품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와코루가 구매해갈 정도가 되었으며, 일본의 주이쓰리나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로 인해 부천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해 섬유원단 공장을 지었는데 수출경기가 좋아지면서 더 넓은 공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에 다시 150억원을 투자해 아산시내 1만평 부지에 5천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전 공정을 자동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연간 약 5000여종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상품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부천은 이미 국내 고급 속옷 시장을 석권한 상태이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국의 의류업체에 섬유제품을 수출

하고 있다.

이렇게 평생을 섬유산업에만 매달려 온 덕분인지 부천의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받아 98년과 99년 수출의 날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창립이래 10여개의 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 고품질 기술력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섬유산업 경기가 70~80년대의 성수기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는 그 동안의 구조조정과 세계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경편직물 수출에 다소 호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오히려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보았다. 여기에 유화가격 상승에 따른 원사가격 인상은 바이어와의 상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의 가격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단가인상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바이어가 한국을 찾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환율문제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여건은 개선되기보다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더욱이 과거 우리의 경쟁자에서 이제 세계 경편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은 기존 문제들과 함께 동종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국내 경편제품 가운데 스판벨벳의 경우 중국의 품질은 아직 우리의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또 투웨이 폭포도 디자인개발과 나염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할 때 충분한 경쟁력 발휘가 기대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탈리아나 스페인, 일본 수준으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선진국의 섬유산업은 산업용 소재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섬유산업 특히 경편 분야 또한 산업용 섬유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보다 근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은 의류용보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트, 인조스웨이드 등 산업용 소재로 생산품목을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시아 정상에서 세계정상을 향한 비전

섬유산업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1년 후 패션의 흐름과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상품을 기획해야 한다. 우리 부천도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5년 내에 아시아 3위에서 세계 5위권의 자수제품 생산기업으로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전 임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내 개인적인 꿈이 한가지 있다면 섬유 관련 디자인 원본과 샘플을 전시해 우리나라의 전통자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수박물관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38년째 섬유 외길인생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한편 우리의 섬유산업이 과거의 중흥기를 이어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人間**

# 지구촌 안보환경과 한국안보의 현안과제

송대성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구촌 안보환경과 한국안보의 현안과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안보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보환경이라는 것은 세월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은 비슷하게 사는지 몰라도 세월에 따라 안보환경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 안보환경을 다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안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서론적인 면에서 안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서는 2004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지구촌 전체 환경의 특성, 세 번째는 한국안보의 현안과제로 노무현정권인 이 정권 하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엮고자 합니다.

## 안보의 의미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 국제정치학에서는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3대 기둥이 있습니다. 3대 기둥이란 첫째가 경제역량이라는 기둥이며, 두 번째가 안보역량이라는 기둥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3대 기둥 가운데 학자들이 정의하는 안보란 국토주권, 국민의 생명, 재산문화를 보호하고 사회교란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생명 우리의 삶 전체를 이상이 없도록 잘 보호하는 것이 안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다른 적의 가치관으로부터 침범 당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래서 안보라 하면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 지구촌 안보환경의 특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성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초강대국으로 지금 지구촌 속에 우뚝 서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적어도 25년간은 이 분위기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래학자, 역사학자, 안보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GDP의 규모에서도 일본, 독일, 영국 등 2위에서부터 7위까지의 국가 GDP를 합치면 미국의 GDP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



제211회 「거제시민자치대학」 2004년 12월 3일(금)

력이 미국이 최강입니다. 국방예산이 4,000억불인데 작년에는 3,800억불이었습니다. 지구촌 200여개 국가 가운데 국방예산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10여개 국가를 뺀 나머지 192여개 국가의 예산을 합한 것의 49%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국방예산이 전세계 국방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촌 전체가 테러와 반테러라는 푸른 피와 붉은 피로 나뉘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게 1~2년 안에 끝날 전쟁이 아니고 부시대통령이 엄청난데 크게 벌려 놓은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치안까지도 군이 같이 봅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서 지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안보 개념이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억지전략이다, 내가 먼저 전쟁을 걸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전쟁을 거는 것이 엄청 나쁜 일로 돼있었지만 이제는 전략개념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억지전략은 그대로 있고 예방, 선제공격, 또 하나가 미리 예측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으로서 주한미군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북한이 가만히 쳐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토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작전을 하는 우리군의 전략도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 안보와 치안개념이 혼미해졌습니다. 종전에 안보란 것은 군인이 맡고 치안은 경찰이 맡았는데 9.11사태 이후로는 군인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치안도 맡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전쟁은 TIS장악여부, 즉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정확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세 번째는 공중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MD라는 대량살상 무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지구촌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 안보의 현안과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안보의 현안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대한민국 내부적 가치와 위협에 대한 인식대체를 두고 국민들 속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분열 및 갈등이 해방이후 이렇게 심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걸 두고도 산산이 나누어져 있어요. 또 우리가 지킬 가치를 위협한 실체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인지 이걸 두고도 나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 한미공조가 약화 내지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직격탄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약화되고 흔들리고 근본문제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조금 불안했지만 이제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북한정권의 속성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반 박대통령 시절 남북적십자회담 할 때 저도 울면서 TV를 많이 봤습니다. 북한대표가 와서 굉장히 좋은 연설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울고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땅굴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안보의 큰일입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한국사회의 안보역량 훼손문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충일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황도현 중사 아버지가 신문에 글을 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명히 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을 적으로 인식하거나 다루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대한 로드맵이 차이가 나서 허상적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은 수많은 남한사람이 수많은 북한사람을 계속 만나고 물자와 사람이 계속 왕래해서 신뢰가 구축되면 그때 평화체제를 선언하면 전쟁도 없고 통일로 간다는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아무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사람, 빼먹을게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진짜 양쪽이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있고, 한쪽은 가짜 마음을 먹고 속이는 걸로 하는 이런 것을 가짜 평화체제 또는 허상적 평화체제라고 하는데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이게 진짜 큰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의 신패권주의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니까 미·일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중국의 패권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 심각한 주제로 삼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 3족 엠티훈련'을 해야 합니다. 친족, 처족, 외족 다 있지 않습니까? 먼 곳 걱정하지 말고 내 주변에 혹시 우리가치를 잃어버리고 머리띠 두른 사람이 없는가? 또 파란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안보는 국민이 합세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연고 엠티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말에 동창회 등에 가면 맨날 폭탄주만 마시지 말고 누군가 우리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냐는 문제의식 하에 나서서 논리적으로 '우리모임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의들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적어서 엠티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내 종교 엠티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에서 쓸데없는 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이제 골프 3번 칠 것 두 번 치고 10만원 짜리 음식 먹을 것 좀 줄여서 민주투사들한테 성금도 내고 이런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큰일이다 소리만 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우리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지키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내할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人間**



송대성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1945년 생 / '69 공군사관학교 군사학 학사 17기 / '73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79 고려대 국제정치학 석사 / '81~84 美 미시간대 국제정치학 석·박사 / '73~79 공군사관학교 교수 / '85~96 국군기무사령부 정책연구실 비서실장, 정보처장, 보안처장, 참모장 / '96~00 세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부소장 / '01~현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 회원&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한국아쿠르트(사장 김순무)**는 1월 20일 지진,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지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성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에 기탁했다. 한국아쿠르트의 김순무 사장은 “지구의 대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어린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입은 남아시아 지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성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에 기탁했다. 한국아쿠르트의 김순무 사장은 “지구의 대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어린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주)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스페이스 씨에서는 2005년도 첫 기획전으로 ‘리메이크 코리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미술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도상들을 리메이크의 관점에서 차용, 반복하여 이 시대의 인식구조를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작가들을 소개한다. 리메이크의 과정에서 옛 그림이 지닌 고정된 의미들이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문맥에서 재탄생되는 변용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 안 내

- 일 정 : 2005년 1월 20일 ~ 3월 26일
- 장 소 : 압구정동 스페이스 씨 (02-547-9177)
- 작 가 : 씨니 킴, 김종국, 김지혜, 김태은, 류재하, 이순중, 임영길, 장희정, 정주영

- **주얼루시 하경화** 사장은 주업종인 귀금속과 함께 플로리스트로서 전국 꽃배달 서비스, 실내외조경 등을 하는 젬플라워(Gem Flower)를 개업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 안 내

- 전 화 : 02-549-7373 • 팩 스 : 02-549-1184
- 홈페이지 : www.gemflower.co.kr(국민은행 097601-04-046142 점)

- **일양약품 중국의 ‘통심락(通心絡)’ 국내 독점 시판**



심장병, 협심증, 심혈관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약으로 입증된 유효성과 안전성으로 중국 내 순환기 영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심장병, 협심증, 심혈관 치료제 통심락을 **일양약품(대표 유태숙)**에서 독점 판매한다. 중국 중의학인 풍병이론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동물생약 5종과 식물생약 3종이 함유된 심·혈관 치료제로 심장 뇌혈관질환의 치료 및 예방의 2중 효과를 보이는 순수 한방생약이다.

- **세원(주) (회장 김병춘)**은 지진 및 해일로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난 1월 20일 7,152,000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하였다.

- **유한김벌리(사장 문국현)**는 지난 1월 13일부터 ‘디펜드 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펜드 효캠페인은 효를 가꾸고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써 가족과 부모님에 관련된 아름답고 가슴 훈훈한 미담을 응모한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성인용 안심위생팬티인 디펜드(2박스, 약 1개월분)를 증정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주)태창가족(사장 김서기)**은 지난 1월 14일 본사 8층에서 서울보건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주)태창가족과 서울보건대학교는 향후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기술교육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 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협력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림건축(명예회장 김정철)**에서는 매년 한해동안 작업의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여 보다 큰 발전과 도약의 밑거름이 되고자 작품집을 출간한다. 올해도 2004년 한해 동안의 정림건축 작품집을 출간하였으며, 이번 작품집은 서울대 김광현 교수의 비평과 협업이 있는 외부디자이너들 그리고 정림건축 직원들이 함께 한 워크샵, 2005년 한해 정림의 작품과정을 보여주는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입문의 : TEL. 708-8748)



- **제일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우항)**는 지난 1월 18일 대구은행과 방카슈랑스 업무제휴를 맺고, 2월 2일부터 대구은행 전국 180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제휴로 제일화재는 대구·경북지역 기업체를 타겟으로 한 ‘기업사랑 종합보험’ 등 일반보험 특화상품을 시판한 후 4월부터 고보장 장기보험 상품도 선보여 방카슈랑스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광복 60년, 을유년 새봄을 맞이하여 **해청미술관(관장 손경식)**의 개관을 기념한 한국서예 100인 초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안 내

- 전시기간 : 2월 5일 ~ 3월 6일
- 초청일시 : 2월 5일(토) 오후 3시
- 초청장소 : 해청미술관 전시실 T.02-336-5885 (홍대역 4번출구)

## 신규회원



### 정민기 KANNE BNG(주) 대표 (법인회원)

- 등록임원 : 정대금 부사장, 김상의 전무, 허제복 상무, 임진 상무, 이흥규 상무
- 주 소 : 강서구 등촌3동 700번지 투에프코트빌딩 8층
- 전 화 : 02-2658-3600
- 팩 스 : 02-3662-9001
- 업 종 : 도·소매
- 주생상품 : 음료, 화장품
- 추 천 인 : 박종주 KANNE BNG(주) 부사장



### 김승규 SH공사 사장 (법인회원)

- 등록임원 : 김만기 감사, 정인홍 총무이사, 박필용 개발이사, 허영 뉴타운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 전 화 : 02-3410-7003
- 팩 스 : 02-3410-7576
- 업 종 : 주택건설, 임대관리업
- 주생상품 : 음료, 화장품
- 추 천 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법인회원)

- 등록임원 : 김용준 전무이사, 심달섭 감사, 신동기 이사, 김학주 이사, 조인제 이사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 전 화 : 02-710-4545
- 팩 스 : 02-710-4356
- 업 종 : 금융, 신용보증
- 추 천 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이상영 (주)농협유통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0번지
- 전 화 : 02-3498-1285
- 팩 스 : 02-3498-1004
- 업 종 : 도·소매업
- 주생상품 : 유통
- 추 천 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장혜숙 (주)에어록 사장 (개인회원)

-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1 주은리더스텔 1109
- 전 화 : 042-861-6266
- 팩 스 : 042-472-6266
- 업 종 : 제조, 서비스
- 주생상품 : 나노응용제품
- 추 천 인 : 강민지 월간골프가이드 사장



### 대몽헌법 대한불교 조계종 영각사 주지 (개인회원)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22-3
- 전 화 : 031-498-7700
- 팩 스 : 031-498-7703
- 추 천 인 : 공한수 빅드림 앤 석세스 사장



### 우연진 연화정사 법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07-40
- 전 화 : 02-847-0566
- 팩 스 : 02-834-2643
- 추 천 인 : 공한수 빅드림 앤 석세스 사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SH공사	김승규 사장	(2월 1일)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이종원 회장	(2월 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	(2월 1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오경근 원장	(2월 7일)
GE코리아	이채욱 사장	(2월 22일)
진양공업주식회사	한영호 대표이사	(2월 24일)
신라철강(주)	이수용 사장	(2월 28일)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 회원&연구원 소식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회장 유상옥/코리아나화장품 회장)**는 1월 31일 210차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성도GL 사장)**는 1월 17일 논현동 와인갤러리에서 신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심종두 창조노무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최근 노사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사무총장 이두호)**은 지난 1월 25일 인사동 이조에서 신년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모임에서는 2005년 차이나클럽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아주대 교수)**은 1월 정기모임을 19일 평창동 ‘인마이 메모리’에서 신년 작은 음악회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김언호 사장께서 기획하시고 마련하여 주셨으며, 많은 회원분들과 가족이 동반하셔서 감동과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김영덕 삼립식품 사장의 장남 결혼식**이 1월 22일 공학터미널예식장에서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연락처 : 031-498-6181)

• **한국자금융재 이두호 사장의 차녀 결혼식**이 1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2631-3282)

• **윤건우 삼보주단 사장의 장남 결혼식**이 1월 3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733-2324)

## 지자체 소식

### • 「함양군민 자치대학」 개설

경남 함양군(군수 천사령) 주최, 본 연구원 주관으로 21세기 새 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군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선진함양 건설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고자, 함양군

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함양군민 자치대학」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월 14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만기 본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령 군수의 “꿈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을 가졌으며, 향후 월 2회 정기적으로 자치대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김포시민 자치대학」 개설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동식)와 본 연구원이 함께하는 21세기 신지식을 위한 자치대학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월 10일 오전 10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개강식은 이상용 방송인을 초청하여 “웃으며 사는 여유있는 세상”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및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연구원소식

### • 한·일 정치·경제 교류를 위한 오다케 요시키 한국방문단의 교류 간담회

창립 30주년 특별기념세미나로 오다케 요시키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 창업자이자 최고고문을 초청하여 '한중일 경제인들은 아시아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초청 강연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회로 오다케 요시키 고문 외 10여명의 정치,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기간 중 환영행사 및 정치, 경제계 교류간담회, 한국측 지도자와의 면담,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대,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방문, 경북대 총장과 이종현 ASPA 회장 공동주최 만찬회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월 2일은 환영행사 겸 회원과의 교류의 장으로 만찬간담회를 가졌으며, 2월3일은 방문단측의 초청으로 정치,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찬의 장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방문한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 교류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姓 名	英文	所属名	肩書
1	大竹 美喜	OTAKE YOSIKI	AFLAC JAPAN	創業者・最高顧問
2	虎王 友伸	KODAMA TOMONOBU	株式会社山陰 FAMILY 保険	代表取締役
3	新貝 寿行	SINKAI HISAYUKI	AFLAC JAPAN	常務執行役員 (広報・IR・金融法人部担当)
4	森吉 耕一	SIBUYA KOUICHI	RICKY BUSINESS SOLUTION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5	笹川 幸一	SASAGAWA KOUICHI	法政大学 CAREER DESIGN 学部	学部長 教授
6	大石 正守	OISHI MASAMORI	国際保険 株式会社	代表取締役社長
7	行徳 智男	GYOTOKU TETSUO	日本 BE 研究所	所長
8	清田 雅行	HAMADA MASAYUKI	株式会社 FLARE ASSET MANAGEMENT	会長 (大竹訪問団 団長)
9	藤末 憲三	FUJISUE KENZOU	国会議員・民主党	参議院議員
10	趙 佑鎮	CHO WOJUN	青森公立大学 経営経済学部	助教授
11	白 真勲	HAKU SINKUN	国会議員・民主党	参議院議員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 SK UTO인과 함께 한 Life Planning 테마정보 행사지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참여에의 동기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강의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모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프 플랜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나아가 삶의 목표와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1월에, 결코 짧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로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ID: kjina913)”.

지난 1월 15일 2,30대 젊은 비즈니스맨을 타겟으로 한 SK Telecom의 멤버십 서비스인 UTO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UTO 챗린저 테마정보의 하나로 2005년 새로운 한 해의 꿈과 소망을 세워보는 Life Planning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본사 전문 퍼실리테이터이자 산업체 인기강사로 맹활약중인 조재호 선생님의 명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매달 개최되던 테마정보의 정원을 훨씬 초과한 80여명이 참가해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미리 자신의 꿈을 글로 적어보았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밝히셨던, UTO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성공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 ■ LMI 수료자 모임 및 교육 안내

#### 1. (주)다산(회장 윤영상) 임원 리더십과정 개강

연구원의 회원이신 (주)다산의 임원 9명을 대상으로 위한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과정”이 2월 1일(화)부터 총 16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가 놀라게 향상되도록 돕는 EPL과정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2. BIG DREAM & SUCCESS 제16차 EPL수료자 모임

2월 14일(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모임에서는 대석학이신 류태영 박사를 초대하였습니다. 류 박사는 달랑 편지 한통으로 덴마크 국왕초청 국비 유학을 다녀온 입지전적인 분으로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EBS TV에서 수개월동안 진행되는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초빙되어 인기리에 연강을 마친 바 있습니다. 명동지사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3.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태도와 습관의 변화를 통한 개인목표와 조직목표 달성을 돕는 독특한 변화 프로세스 실천훈련 과정.  
( 16주간, 주1회 2시간)

##### ◇ 효과적인 성과향상 과정 (EPP)

외부환경과 타인, 목표와 계획, 실천과 절차,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의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시적인 성과향상을 체험하는 과정.  
※ 성과향상의 도구 석세스 플래너 포함  
(9주간, 주1회 3시간)

##### ◇ 효과적인 자기경영 과정 (EPM)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 지키기”로최소의 시간투자로 성과를 극대화 하는 과정.  
※ 성과향상의 도구 석세스 플래너 포함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ELI. 02-2202-8700 WEB. www.lmikorea.com

##### ◇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EL. 02-774-3230 WEB. www.whynotyouty.co.kr



# 한류의 증폭제 한글

신부용 (주)교통환경연구원 원장

2004년은 한류가 있어서 훨씬 흥분했다. 이제 2005년의 화두는 한류의 지속 내지는 증폭방안이다. 나름대로 더 많은 예능인을 키워야 한다느니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느니 하는 의견들이 나오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한글의 활용이다. 한류란 무엇인가? 우리 문화의 수출이다. 외국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축적된 문화가 콘텐츠를 제공했고 이를 예술인들의 재능으로 살려 낸 것이리라.

## 우리 문화의 힘은 한글에서 온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만 한 문화가 없고, 재능있는 예술인이 없다는 것일까? 아마 일본, 중국, 프랑스, 그리스 등 무수한 나라들이 이를 수궁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수궁할 수밖에 없는 우리만이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은 한글과 IT기술이다.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자가 혈액이 되어 흐르고 IT기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 준 것이다. 콘텐츠를 대주는 문화가 중요하다 하겠지만 오히려 외국 문물을 널리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결국 한류는 한글과 IT기술이라는 하부구조가 해 낸 것이다.

그런데 한글 없이 IT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정부의 과감한 기반시설투자와 기업의 노력이 기초가 되었지만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세계 최고로 사용해 준 국민이 없었던들 이렇게 빠른 발전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사용은 한글과 같은 IT에 적합한 문자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문화강국은 한글의 공이 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T문자라면 단연 영어를 꼽을 것이다. 컴퓨터 작동언어도 콘텐츠도 거의 100%가 영어 아닌가? 앞으로 영어만 남고 다른 언어는 모두 사라질 지도 모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한글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모르긴 하지만 세계 모든 문자메시지의 절반 이상이 한글로 쓰여지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한글이야말로 IT문자로써 영어에 도전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며, 중국에 가서 영어를 제치고 세계의 IT문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국심에서 오는 환상이 아니다. 한글이 애초에 국제어로 태어났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머리가 말해 준다.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표기하지 못해 만드신 것이

다. 즉 중국어를 대체하기 위한 글자이며, 당시 중국어라면 곧 세계어였다. 또한 세종은 얻을 수 있는 세계의 모든 문자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연구했으며 신숙주를 13회, 성삼문을 8회나 요동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사서에는 요동이라 했지만 사실 요동에 뭐가 있다고 최고 학자를 21회에 걸쳐 보냈겠는가? 사대주의에 빠져 있던 당시 신하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지 이들은 기실 발 닿는 데까지 다 다녀왔을 것이다.

## 국제 문자의 조건 :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기 쉬워야 한다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글자의 모양이 소리 내는 입 모양을 따랐고 몇 개 안 되는 기본 글자의 조합으로 무수한 모음과 자음을 만들어 내 세상의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과학적이어서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울 때 입 모양을 연상하니 기억하기 쉽고 몇 글자만 알면 되니까 응용하여 쓰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 미국 버팔로 대학의 이연복 교수는 미국인 학생들에게 글자의 원리를 설명해 가며 한글을 가르친 결과 2시간 안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어라면 엄두도 못 내며 실사 배웠다 해도 한글처럼 다른 나라의 음을 쉽게 표기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한글은 ‘쉽게 배워 무슨 소리도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문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상품으로 치면 기능이 최고인데 값이 싸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명품이다. 국산품애용시대도 지나 이제 1등 상품이 아니면 안 된다. 한글이 세계시장에서 팔려야 옳다.

## IT문자의 조건 : 휴대폰 키보드로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국제어가 되려면 위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IT기기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IT기기는 소형화·휴대화 되고 있어 휴대폰의 10개 단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야 한다. 이는 우선 한자를 경쟁에서 탈락시킨다. 일본글자는 100여 개이고 영어 알파벳은 대문자까지 합하면 52개여서 이들을 10개의 키보드로 불러 쓰려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사리 문자메시지를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많은 젊은이들이 이메일 보다 휴대폰 메시지를 선호한다지 않는가?

한글을 더 분석해 보면 천(·), 지(—), 인(1)의 모음 세 글자와 자음 10글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의 3+10으로 귀착된다. 이 13글자의 조합으로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소리도 다 표기할 수 있다. 영어의 f, v, r 등은 훈민정음의 순경음을 겹차음으로 만들어 (ㅇㅍ), (ㅇㅂ), (ㅇㄹ)로 표기하고 중국어의 권설음 zh, ch, sh도 각각 (ㅈㅎ), (ㅊㅎ), (ㅅㅎ)로 쓰면 된다.

다만 기존의 휴대폰 문자판은 10개의 단추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3+10으로 개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단 10개의 자음 단추를 쓰도록 개조하고 나면 10개 단추에 자음을 하나씩 배정할 수 있게 되어 각 단추가 고유의 글자 모양(ㄱ 단추는 ‘낫’ 모양으로 만들)을 띠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눈을 감고도 단추를 만져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시각 장애인도 능히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필자의 발명특허이기도 하다.

### 한글의 보너스 강점 : 문자와 소리의 1 : 1 대응

한글의 강점은 예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자와 소리가 정확히 1 : 1로 대응한다. 즉 하나의 문자가 고유의 소리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기호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세계문자라는 영어는 어떤가? 단어

의 스펠링과 발음이 달라 초등학생들은 매일 쓰는 말의 스펠링을 외우느라고 진땀을 뺀다. 어른들도 걸핏하면 스펠링을 불러달라고 한다. 그걸 불편해 그들은 대부분이 밥, 톱, 진 같은 쉬운 이름을 쓴다.

1 : 1 대응이 IT기기에 접목되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글자를 눌러 바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엄두도 못내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3+10) PDA’로 구현시키면 문자판을 두드려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은 물론 청각장애일까지 장애를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배우기 쉬우니 우리나라 장애인들만 쓰라는 법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장애인들이라도 우리의 (3+10) PDA를 쥐어 주면 한 두 시간 후, 넉넉잡아 하루 이틀 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질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PDA를 가진 장애인이 한자를 쓰는 정상인보다 빠르게 작문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부러우면 정상인들도 우리 한글 PDA로 문자메시지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글은 세계 IT문자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노래를 한글 원음으로 읽어가며 부르게 되고 점차 우리말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류가 지속되고 증폭 될 것이다. 이것이 나만의 부질없는 환상일까? **人間**



신부용 (주)교통환경연구원 원장

1943년 생 / 64 서울대 토목학과 / 캐나다 토론토대 교통공학 박사 / 캐나다 N.D.Lea & Associates 교통공학 전문 컨설턴트 / McMaster대, 명지대, 아주대 강사 / KIST 유치과 학자, 교통연구부 부장, 교통개발연구원장 / 현 건교부 예산자문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원탁회의 회원, (사)녹색교통운동 대표, 범국민 교통안전운동본부 상임대표, 교통문화지수 평가단 공동대표 외



# 공적 리더십과 퍼스널 리더십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최** 근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섬기는 리더 예수>, <따뜻한 카리스마>, <덩샤오핑 평전>, <손자병법>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리더십 전문서적이 넘쳐난다.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사실 선진국 기업들은 교육의 상당부분을 리더십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뿔 수 있도록 만드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느냐 타율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스스로 뿔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리더십에는 공적 리더십(Public Leadership)과 퍼스널 리더십(Personal Leadership)이 있다. 공적 리더십은 조직의 질서 속에서 나온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조직의 시스템이 권위를 만들고 그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된다. 반면에 퍼스널 리더십은 자기 성찰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다방면에 걸쳐 발휘되는 리더십이다. 공적 리더십이 근무시간에 한정되어 있다면 퍼스널 리더십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작동되는 리더십이다. 따라서 퍼스널 리더십의 내적 자질 없이는 공적인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우리는 공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교육받을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퍼스널 리더십에 관한 교육은 기회가 많지 않았다.

지식사회에서는 조직구조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퍼스널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뿐인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퍼스널 리더십이 뒷받침되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퍼스널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LMI리더십의 폴 마이어 회장은 퍼스널 리더십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내리는 자기 확신의 능력이다. 둘째,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전력투구하게 하는 능력이다. 셋째, 목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획득하고 완수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퍼스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환경의 영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교육을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꿈과 욕구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분쇄된 소나무처럼 왜소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훈련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두려워 책임 있는 퍼스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퍼스널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꿈과 비전의 수립, 가치관의 정립, 효과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더 스스로 자신을 성장함으로써 형성된 퍼스널 리더십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목도하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개인의 꿈과 조직의 꿈이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 리더십과 함께 퍼스널 리더십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人間**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인간개발 리더십시대를 열자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마 쓰시다 전기가 무엇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나?” 생전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만난 직원에게 물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의 총수이자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일군 전설적 인물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은 직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다. “세계 최고의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아니아, 마쓰시다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네.”라고 말했다.

2004년 언젠가 손욱 삼성인력개발원장의 강연 말미에 연구원의 명예회장이신 조순 박사님이 Closing remarking에 인용했던 말을 시민의 신문 정치환 편집 부국장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연구원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로 쓴 기사의 일부이다. 1975년 2월 5일 창립이래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목요일 아침을 깨운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이끌어 왔기에 미스터 스터디(Mr. Study)라는 별명까지 붙여 새벽을 여는 강연 30년 대장정의 주요일지를 곁들인 기사였다. ‘아침형 인간의 시대’를 맞아 돌이켜 보면 오늘의 지식경제시대를 예고한 경영자 조찬연구회 문화를 지난 30년간 창도해왔다는 점에서 Mr. Study라는 별명은 기발한 발상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이자 덕목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신년벽두부터 국가적 화두는 경제 회복과 건강한 삶을 표방하는 웰빙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깊이 짚어 봐야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에 성공한 기업가나 경영에 대성하고자 하는 CEO들의 화두는 “인재는 기업성공의 원천이며 원동력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등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우리사회를 어둡고, 침울하게 만들고 ‘다운사이징’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인력감축(고용축소)은 비용절감의 첫 번째 수단으로 생각되어 왔다.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인적자원이 오히려 기업생존의 걸림돌로 전락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2005 희망의 포럼’ 창설, SBS가 주최한 ‘미래한국리포트’ 등 사회적 이슈는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대란의 시대를 넘어서 경제를 되살리려는 국민적 외침이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초우량기업들의 특징은 인력감축을 경영혁신의 최후단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20~30년간에 출간된 국내의 경영서적들을 보면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경영성과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생산성을 최고로

향상시키는 비결(Bring out the Best in People)>의 저자 오브리 C. 다니엘은 “사람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면 왜 CEO들은 인간행동을 이해하기보다는 경영성과를 말해주는 대차대조표를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행동에 관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한 스태프에게 사람들을 움직여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는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을 맡겨버리고 있을까?”라고 CEO들의 인간행동에 관한 무지 내지는 무관심을 꼬집고 있다.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눈앞의 가시적 성장과 경쟁전략에만 정신을 쏟아온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과학적 접근에 의한 인간연구와 인재양성에 소홀히 한 결과 한국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교육기관은 물론 정부기관, 기업 및 모든 사회기관들이 남아시아 해안을 강타한 지진과 해일처럼 세차게 불어닥친 미래사회 변화의 물결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조직에 필요한 인재개발을 위해 과학적, 전략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데서 온 인재(人災)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늦기는 했지만 금년 초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획기적인 경제회생정책은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절한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활성화 전략이다. 소비와 생산의 주체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접근은 앞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쏟아야할 핵심적 과제이다. IT, BT, NT 등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전략을 세워 집중 강화해야할 분야는 우리 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어렵게 쌓아온 국가 사회적 신뢰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PT(People Technology)분야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은 향후 30년의 한 세기를 내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보면서 ‘Better People Better World(좋은 사람이 좋은 세계를 만든다)’의 확고한 신념으로 PT개발에 주력해 새로운 인간개발의 세기를 열고 ‘인간개발 리더십시대’를 창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연구원이 21세기를 맞아 새 천년 새인간 새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Glocalization과 Millennium 사상이자 비전이고 사명이다. 人間



## 풍요의 병리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벌**써 한·일 수교 40년, 회담 반대의 젊은 목소리가 아직 귀에 쟁쟁한데, 이제 그 데모의 주역들이 환갑을 넘고 있으니 감회가 착잡하리라. 수교 40주년 기념 한·일 ‘히끼꼬모리’ 심포지움이 새해 벽두 교토(京都)에서 열렸다. 두문불출, 학교도 사회도 거부, 심지어 가족간의 대화마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한·일 비교를 위해서다. 전문가, 가족, 취재진 그 지역 국회의원까지 3일간의 모임에 넓은 강당을 꽉 매웠다. ‘히끼꼬모리’가 120만이라니 일본인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젊은 사회학자 미야다이(宮台)교수의 강론은 충격이었다. “왜 그들을 집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나?” 그의 발표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시 사회로 끄집어내려면 사회가 건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일본 사회가 과연? 학교도 마찬가지. 왜 가야 하나? 이미 일본의 학교는 젊은이에게 매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전엔 공부가 싫어 탈락했지만 이제 그래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그리고 성공, 행복, 이런 가치관이 붕괴 된지는 한참이나 되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상회한다는 보고에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학생이젠 학교가 중심이라는 의식부터 사라졌다. 사회도 마찬가지, 중심 의식이라는 게 없다. 따라서 주변이나 변두리, 상하(上下), 성공과 실패라는 의식도 사라졌으니 사회적 응집성이 없다. 가족의식도 뿔뿔이다. TV, 전화까지 개실화(個室化)됨에 따라 가족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간다. 한 밤중, 가정을 곁에 두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광경은 이제 일상사가 되었다. 부모 생일을 아는 한국 학생이 70%나 되고 또 생일에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 반을 넘는다는 전남대 미스노(水野)교수의 발표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옆자리 원로 의사가 고개를 흔든다.

이제 일본 젊은이에게 가족을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라는 생각은 없다. 원대한 꿈이나 이상도 없다. ‘타인은 소음(noise)’이라 관계를 회피한다. 진실한 우정도 환상이라기 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

“그런 사회라면 히끼꼬모리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어쩐지 난 일본 사람이 가엾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본이 어찌다 이렇게 되어 가야 합니까. 선배들이 패전의 설움을 안고 이룩해낸 풍요가 젊은이를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까? 실은 한국도 걱정입니다. 아직은 히끼꼬모리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클리닉을 찾는 가족들의 상담을 듣노라면 그 실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지요. 우리 한국 사회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본 사회를 닮아 가는 게 많습니다. 좋은 것만 따라가면 좋을 텐데.”

내 코멘트에 간간히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장내 분위기는 침통했다. ‘풍요의 병리’, 이긴 한 돌이 아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병리는 심각하다. 히피, 펑크, 폭주족, 학생 아파시, 청년 퇴각증, 등교 거부, 가정 내 폭력, 기생(寄生)족, 오다구(마니아), 히끼꼬모리, 최근의 니트(neet)족까지 시대나 문화에 따라 증상 표현이 달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붙긴 했다. 하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공통의 병리는 풍요가 몰고 온 젊은이의 ‘무기력증(無氣力症)’에서 비롯된다.

비슷한 문제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도 많은 문제들을 겪어 왔고 또 앞으로 그럴 징조는 얼마든지 보인다. 우리의 선택은? 결론 없는 질문을 또 한번 물어야 할 때가 올 것 같다. **人間**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 왜, 겨울에도 비타500일까요?



춥고 건조한 날씨로 몸과 마음은 얼어붙고,  
꼭꼭 닫힌 창문으로 공기는 답답하고,  
여름에 비해 과일이나 야채도 덜 먹게 되고,  
추울수록 몸 잘 챙겨야 하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마시는 **비타민C**  
**비타500**을 권합니다.

무카페인



www.kdwell.com  
광동 웰빙건강 인터넷 쇼룸 탄생!  
다양한 open기념 이벤트 실시중

'04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올해의 히트 상품!!  
비타500 공식홈페이지 [www.vita500.com]

# [ 부부라면 가볍게 타자! i-First 온라인자동차보험 ]

부부만 운전한다면 저렴한 실속형!

- 부부한정 특약6.7% 할인
- 온라인 15%에 ABS추가할인
- 에어백 차량 10~20% 할인
- GPS차량 2% 할인

## -269,540원

남36세 가입경력 1년 미만 / 할인할증 100% / 2004년형 뉴이벤트D / 부부한정 특약



보장이 더욱 든든한  
3040 온라인자동차보험

- 보험가입자포함 온가족혜택
- 온가족대중교통사고보상
- 주말, 휴일 사고시 2배보상

### 1588-3040

[www.3040.co.kr](http://www.3040.co.kr)



### 1588-8282

[www.ifirst.co.kr](http://www.ifirst.co.kr)